+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부산 · 경남지역 방송기술 교육 개최

[(좌에서 우로) 부산 · 경남지역 방송기술 교육에 참석한 EBS 김경수 협회장, MBC 최응식 협회장, SBS 김성훈 협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양창근 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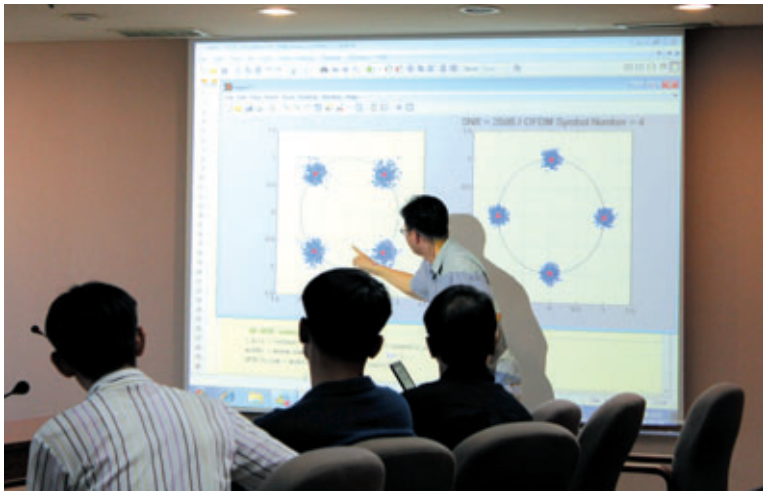
부산 · 경남지역 방송기술 교육이 지난 7월 29일(목), 부산 MBC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역 방송사 소속 방송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환경에 따른 지상파 방송정책, HD & 뉴미디어 관련 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의 우수 방송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취임 후, 첫 지역 교육으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양창근 연합회장, MBC 최응식 협회장, SBS 김성훈 협회장, EBS 김경수 협회장이 참석해 미래 방송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방송기술 교육은 매월 지역 방송사를 방문하여 진행되며, 디지털 전환 및 뉴미디어 관련 등 다양한 내용과 명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지역 방송사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내용의 강의를 준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박사]

[KBS 기술연구소 임중곤 연구원]



이날 교육은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박사가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방송"이라는 주제로 KBS와 EBS의 MMS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올바른 방송주파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MBC 기술연구소 최동환 차장은 "MBC 뉴스 NPS 구축사례"라는 주제로 뉴스 NPS의 구축 목적, 기대효과, 구축내역, 시스템 관리운용 방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며, 실무 담당자들이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KBS 기술연구소 임중곤 연구원은 "DMB 2.0 & AT-DMB"라는 주제로 DMB와 AT-DMB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DMB 수용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DMB 2.0 서비스의 편성이나 추진일정, 스마트폰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했다.

부산 MBC 이승신 부장은 "정관 DTV 방송보조국 공동구축 사례"라는 주제로 중계소 위치, 수용 매체, 공동신설을 위한 협의 내용, 정관 DTV 방송보조국 추진일정, 보조국 신설을 위한 전파환경 측정 등 보조국 구축 사례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강의했다.